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0월(제7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경사스러운 창립 70주년, 축하드립니다!

## 브라질 오이타현인회 70주년 기념식



지난 23일, 브라질 상파울루시 소재의 미야기현인회관에서 ‘브라질 오이타현인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오노(尾野) 부지사와 미타라이(御手洗) 오이타현의회 의장을 비롯한 현인회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오이타현 측에서 일본계 사회복지 단체 네 곳에 기념 장려금을 전달하고 현인회 활동에 공헌한 네 명에게 공로자 표창을 하는 등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브라질과 오이타의 인연



오이타현에서 브라질로의 이민이 시작된 건 1912년으로, 제2차 세계 대전까지 오이타현에서 약 300가구가 이민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2년 10월 4일, 이민 가족 29명이 오이타현인회를 창립했고 지금은 300명에 이르는 회원이 소속되어 친목 활동, 상파울루시 일본 축제에서 오이타현의 명물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분고오노에서 사우나를 즐겨요

## 분고오노시 새 소식 분고오노시



오래전부터 암반 사우나 문화가 발달하여 암벽에 구멍을 내고 약초를 태워 사우나를 만들어 즐겨 온 분고오노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살려 대 자연을 활용한 야외 사우나를 관광 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 ‘사우나의 마을(サウナのまち)’로 선언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0월(제7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드넓은 초원 속에서 동물과의 만남을 즐겨 보자

## 규슈자연동물공원 아프리카 사파리 우사시

난 오이타현을 소개하는 기사를 쓸 때 아직 한국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편이다. 그러나 한 번 해외여행을 가면 본전을 뽑는 한국인들에 의해 이미 오이타현 관광지의 대부분은 알려져 있는데, 오늘 소개할 ‘아프리카 사파리’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일본어로 검색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전한다는 점을 차별점으로써 어



필하며 오늘의 장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우사(宇佐)시에 속해 있으나 벵푸시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이곳은 ‘규슈자연동물공원 아프리카 사파리’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사파리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정글 버스(유료)’를 타면 넓은 대지에서 각자의 생태 환경에 맞추어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버스와 동물들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어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정글 버스 뿐만 아니라 자차를 타고 정해진 길을 따라 자유롭게 둘러 볼 수도 있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안전 지프차 상시 대기 중)

일본에서 가장 넓은 부지에 최대한 야생 그대로의 환경을 재현한 ‘대자연스러운’ 이곳은 7개의 섹션 (①곰·산악 동물 ②사자 ③초식 동물 ④호랑이 ⑤하이어나 ⑥치타 ⑦영양)으로 나누어져 있어 위와 같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 공원 소속의 수의사가 특히 추천하는 사파리 추천 방문 시기는 ‘봄’과 ‘가을’로, 3월경에는 새끼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한다. 또한, 추운 계절보다 오히려 더운 계절에 동물들이 낮잠을 자며 활동이 둔해진다고 하니 방문 시에는 참고하면 좋겠다.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탁 트인 공간에서 6km의 코스를 한 시간 동안 돌며 약 70종, 1400마리의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경험은 특별하고 좋았지만, 솔직히 아주 조금 무섭기도 했다(웃음).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0월(제7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이렇게 공원 바깥쪽의 '동물 존(動物ゾーン)'을 돌아보는 사파리 여행을 마쳤다면 이어서 공원 안쪽의 '만남 존(ふれあいゾーン)'에서 동물들을 직접 만져 보자. ①캥거루 만남의 숲 ②승마 체험(유료) ③다람쥐위생이의 숲 ④만남의 목장 ⑤캣 살롱(유료) ⑥도그 살롱(유료)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위 사진은 '만남의 목장'에서 기니피그를 다리 위에 올려 쓰다듬는 모습이고, 아래 사진은 '캣 살롱'에서 시설 스태프에게 안겨 있는 고양이의 모습이다.



이처럼 아프리카 사파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야생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또 친근한 동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다. 개인적으로는 도심 한가운데가 아니라 산속에 위치해 있어 다른 곳과는 달리 무언가 여유가 있는 인상을 받았다. 꼭 누군가와 함께 가지 않아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므로 오이타에 온다면 한 번쯤 둘러 보는 것을 추천한다.



## 九州自然動物公園 アフリカンサファリ

규슈자연동물공원 아프리카사파리

(九州自然動物公園 アフリカンサファリ)

- 주소 : 宇佐市安心院町南畑2-1755-1(872-0722)
- 문의 전화 : 0978-48-2331(일본어 대응)
- 운영 시간 : <3/1~10/31> 09:00~16:30  
<11/1~2/28> 09:30~15:30
- 입장료 : 대인(고등학생~) 2600엔  
소인(~중학생) 1500엔

### [동물 존 : 사파리 안내]

#### ① 정글 버스(ジャングルバス)

- 이용 요금 : 대인 1100엔 / 소인 900엔
- 배차 간격 : <평일> 20~30분  
<주말, 공휴일> 10~15분

※버스 배차 간격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출발 시간은 별도 공지 X, 현장에서 확인 가능  
※현재 사전 예약 접수 X, 당일 선착순 탑승  
※입장 마감 시 홈페이지에서 공지

#### ② 자차 이용(自家用車) : 별도 비용 없음

### [만남 존 : 유료 시설 안내]

- ① 승마 체험 : 1회 500엔
- ② 캣 살롱(고양이 체험), 도그 살롱(강아지 체험)
  - 이용 요금 : 각 대인 300엔 / 소인 200엔
  - 운영 시간 : <3/1~10/31> 10:00~16:00  
<11/1~2/28> 11:00~15:30